

# 이스라엘 '새로운 국면' 예고...가자전쟁 '갈림길'

### 고강도→저강도 시사...NYT "향후 4개 시나리오" 예측 헤즈볼라와 충돌·美와 갈등 봉합 등 변수에 향해 갈릴 듯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려 함에 따라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열어질지, 아니면 또다른 불씨를 던질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3일 TV 인터뷰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고강도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그가 이처럼 가자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곧 진입한다고 말한 것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가습을 받고 '피의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이 전쟁 9개월

째를 앞두고 저강도 전투로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이같은 국면 전환은 특히 이스라엘이 국경 남쪽인 가자지구에서는 최남단 라파까지 초토화한 가운데 국경 북쪽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충돌이 격화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두와 전략적 구상의 초점이 레바논을 상대로 한 국경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NYT는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가자 전쟁의 방향 또한 이스라엘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기로에 서게 된다고 NYT는 내다봤다.

NYT는 '새로운 국면'이 실제로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내다봤다.

우선 가자지구를 파바람으로 몰고갔던 이스라엘의 타격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소규모가 될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스라엘 군이 라파 작전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그간 가자 전역에서 벌였던 인질 구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군 당국자들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조직원들이 세력을 회복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전쟁 초기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짧게 타격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NYT가 주목한 두번째 시나리오는 가자지구의 권력 공백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을 전쟁 목표로 내걸면서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를 대신해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하게 될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도부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면 이는 결국 하마스 지도부가 장악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정기적으로 타격한다면 이는 하마스 부활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강단이 오히려 기습을 부리게 되면서 치안 공백이 커져 전후 재건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와 맞닿은 이집트 국경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무기 밀수를 차단할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세번째 정점은 이스라엘 국경 북쪽에서 헤즈볼라와 충돌이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지 여부다.

NYT 관측대로라면 일단은 이스라엘이 북쪽에 병력을 증강하는 게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가 수많은 로켓 공격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계산 착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지도부는 지난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이미 꺼내든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신호가 긴장 완화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NYT는 점쳤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 일원으로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줄어드는 게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네번째 화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거진 불화가 어떻게 될지다.

군건한 맹방이던 양국은 가자지구 휴전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이어왔으나 저강도 단계인 '새로운 국면'에서는 긴장이 불거질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 '경제·이민'

트럼프

## '민주주의'

바이든



### 美 유권자 적합도 조사...바이든 국정지지도 37%

미 대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사이에서 경제 분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1~23일 미국 등록 유권자 8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 고공 행진으로 유권자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하고 실업률이 2년 이상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수년 동안 빠르게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 정치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에 대응하는 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낫다는 응답이 39%로 트럼프 전 대통령(33%)보다 우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학금 돈 의혹'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등과 관련해 다른 3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민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44%)이 바이든 대통령(31%)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

이로 정적에 있어선 바이든 전 대통령(40%)이 더 낫다는 평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29%)보다 많았다.

외교 분쟁과 테러 대응에 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40%)이 바이든 대통령(35%)보다 우세한 평가를 받았다.

이 기간 등록 유권자를 포함한 미국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7%로, 지난 달 조사(36%)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세기의 폭로자' 어산지...14년만에 고국 품으로

### 호주, 미국과 '형량 합의'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풀려나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게 됐다. AFP·AP 통신 등은 어산지의 석방 배경에 대해 그의 모국 호주의 '보이지 않는 외교 작전'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2022년 5월 호주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어산지 석방을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결국 미국에 그의 기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앨버니지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석 영국 총리를 만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석방돼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호주를 찾아 어산지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기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건이 교착되자 호주 당국은 어산지의 가족에게 어산지가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형량 합의를 통해 석방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자고 조언했고, 어산지 측이 이를 받아들여 기류가 달라졌다고 AFP 통신은 익명의 외교관 발언을 빌려 보도했다.



위키 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운데)가 26일 영국을 떠나 북미리아제도 사이판에 도착했다. 사이판 법원은 이날 오전 어산지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 연구 책임자인 자레드 몬드사인은 캐럴라인 케네디 호주 주재 미대사가 호주 당국과 지난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그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호주 의회도 미국과 영국에 어산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이 문제를 종결하자는 탄원서를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어산지의 어머니 크리스틴 어산지는 "탄원서 채택이 조용한 외교의 중요성과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존 스펀은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에게 감사를 전했다.

어산지의 변호인 제프리 로버트슨은 호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어산지를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협상이 훨씬 더 힘들었다"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 덕분에 이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어산지는 미국 육군 정보분석원인 켈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로 취급되는 외교 전문과 국방 정보를 빼돌려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체포됐으며 영국 법정에서 미국, 영국 정부와 미국 송환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어산지는 영국을 떠나 미국령 사이판으로 향한다. 그는 26일 오전 미국령 사이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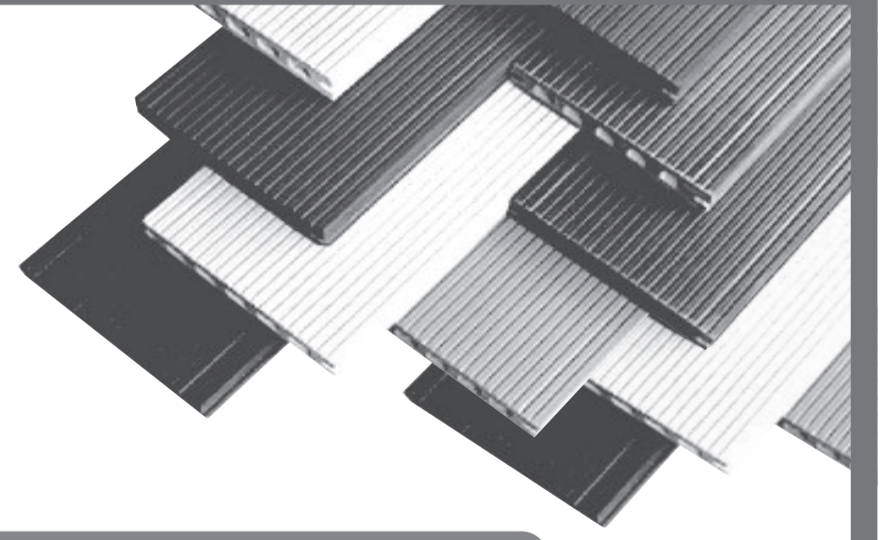
호주 언론은 그가 영국에서 수감된 기간과 동일한 5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석방돼 호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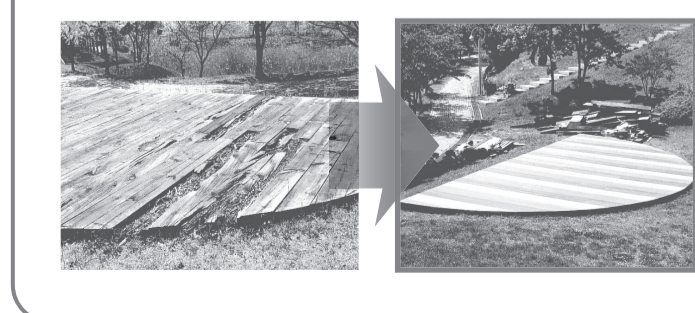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